

# 은혜와 진리소식

2025년 9월 7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40호

1982년 8월 8일 창간

##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전도를 위해, 우리 교회의

세계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 김 용 속 -

저는 올해 나이가 여든 다섯인 은혜와진리교회 권사입니다. 어머니가 일제 강점기에 먼저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으신 후 감사하게도 일찍이 가정이 복음화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서울에서 살다가 6.25 전쟁 중에 저희 가족은 용인 아래로 피난을 갔습니다. 전기 설비와 기술 감독자였던 아버지는 나라에서 먼저 멀리 부산으로 피난을 시키셨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교회생활을 할 수는 없었지만 수시로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의 참화속에서 어머니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청년 시절에 저는 대학교 총장님이 선물로 주신 신앙잡지에서 조용목 목사님의 글을 감명 깊게 읽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조 목사님이 인도하신 수요일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는 중에, 피부암을 고침받는 놀라운 신유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저의 어머니도 조용목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은혜받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열심히 교회에 다니며 주님을 섬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저에게 “조 목사님이 안중·발안으로 내려가는 경기남부지역에 큰 교회를 설립하실 테니, 너는 꼭 그 교회에 다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그곳이 어딘지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와진리교회에 출석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성 봉담에 세워진 전원성전에서 기도성회와 구역장 세미나에 참석할 때마다 어머니가 해주신 말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에 감탄하여 감사 찬송하였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여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첫날부터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고 첫 달부터 십일조 헌금을 드렸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잊지 않으시고 은혜와진리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 흘리며 감사드렸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전도에 힘쓰고 외국인선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하루하루가 복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감사하며 최고로 행복한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2016년 4월 12일, 제 생일날에 열린 구역장 세미나에서 그동안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전도대상을 받았습니. 무한한 기쁨과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 오르며 꿈만 같았습니다. 저는 교직에 있으면서 사회에서 마스크에 보도된 큰 상을 받은 적이 있고 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미전에서 그 래픽부분 대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가지 상을 받았지만, 그런 상은 저를 교만하게 만드는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전도상의 기쁨과 영예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 상을 받은 기쁨과 영광은 그 후로 신앙생활로 인해 세상에서 받는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고 남는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상패를 보면 절로 전도할 힘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더욱이 목사님께서 구속의 은혜와 진리에 관해 말씀해 주시고 또 사도행전 말씀으로 설교해 주시면 나가서 전도하지 않고는 못배기는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예배에 참석하여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와 감동을 느낍니다. 8월 3일 성찬예배에서도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강해로 말씀해 주실 때 은혜와 감동을 받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생을 잘 보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고 꼭 주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지’ 하고 찬송할 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하시며 “사랑하는 딸아, 열방을 향해 너를 택하였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속으로 ‘이 나이에 내가 어디를 가나? 내가 나이가 들어서 잘 못 들었나보다’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8월 6일 수요일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전화가 와서 직원이 “... 통장과 도장 가지고 돈 찾으러 오세요” 하였습니다. 저는 귀가 잘 안 들려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오래 전 일이었습니다. 유언이나 다름없는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제가 세계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어 선교단체와 불우이웃을 돕는 단체를 후원하면서 전깃볼도 들어오지 않는 가난한 나라의 선교를 위해 자금을 썼는데, IMF 외환위기 사태의 여파로 한 번에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재판을 두 번 하고 그 후로도 오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 고난으로 연단되고 신앙적으로 성숙해졌습니다. 주님을 깊이 의지하고, 수시로 성경을 펼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였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베드로전서 2:20) 그리고 찬송하고 또 찬송하였습니다. “...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는 사이 법률지식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양수금 문제가 해결되고 더하여 보상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받은 문자를 확인한 후, 돈을 찾는 기한에 여유가 있어서 서두르지 않고 용처를 위해 금요기도회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선교헌금을 드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월요기도회에서 조명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자산관리공사에서 받은 돈 전부를 우리 교회 아프리카선교회의 우간다 선교사역을 위해 헌금하였습니다. 은행에서는 혹시 모르니 앞날을 위해 일부는 계좌에 남겨놓으라고 하였지만 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생각하며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나이에 아프리카에 직접 가서 선교 봉사활동을 하지는 못하지만 대신 기도와 후원을 할 수 있어서 말할 수 없이 기뻐고, 이를 위해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감사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 유언처럼 저에게 “너는 전도와 선교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고 당부하시고,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나지막하게 찬송하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12월 29일, 어머니가 천국에 가신 그날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시집오신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전도와 우리 교회의 세계선교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며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협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뵈는 날까지 이 땅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순종하여 전도에 힘쓰게 해주시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속에서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현지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미력하나마 헌신하는 기쁨과 보람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 구역공과 제3권 (3단원 : 구원의 하나님)

## (제14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 **본문** : 에베소서 1:1-14
- **요절**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 **찬송** : 410장(새찬송가 310장), 416장(새찬송가 294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보노라면, 그 아름다움과 오묘함과 정교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명한 계획하에서 창조하셨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매우 풍부하고 자세하며 완전한 기록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물론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공부함으로 우리가 받은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1.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첫 사람 아담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뱀의 꾀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당장에 그를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범죄로 인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벌거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한 채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으며, 그들을 위하여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범죄한 인간의 구원은 인간 편에서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과 그 아내 하와에게 그들의 실패를 만회하고 구원을 주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유혹한 뱀에게 저주를 선고하시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 3:15)고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란 궁극적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뱀’은 사단을, ‘뱀의 후손’은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심으로 마귀를 완전히 멸하실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골 2:15).

이처럼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하심으로 죄와 저주 아래 처한 인간들로 하여금 메시아로 인한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 2.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미 만세 전에 작정하셨을 뿐 아니라, 때가 되매 계획하신 대로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엡 1:3~6)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그의 영원하신 경륜에 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되, 그리스도의 증보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사형수가 특별사면을 받아 자유를 얻게 되듯, 하나님의 은혜로 영벌을 면하고 영생을 누리게 된 성도의 기쁨에 견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는 사람이라면, 사도 요한이 그러했듯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요일 3:1)라고 탄복하며,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 3.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할 것에 대하여도 미리 아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지(豫知)는 그의 전지하신 속성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편에서 볼 때에는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선택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분수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는 말씀과 같이, 구원은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 사람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며(딤후 2:4),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롬 10:11~13). 그러므로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구원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기독교의 도리는 사람들의 탐구에 의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아담에게 처음 계시하셨고,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듭 말씀하셨으며, 마지막으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 찬송을 돌리고 또 이 복된 소식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인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 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2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종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 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 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 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 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 41번길 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 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 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 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 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 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은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